

주간회의

(8월 7일 10:00 원장실)

*** 민선4기 도정시책과제 수행을 위한 TF팀 구성 및 연구수행 방안 논의**

1. 전라북도 산업단지 조성 계획
2.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지원 방안
3. 전북 동부권 개발 타당성 조사

*** 연구원의 연구기능 전환모색**

- 기본과제 선정 신중성 확보, 정책과제 유연성 확보로 장기비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연구과제

***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기본)을 위한 중간자문회의**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자문회의가 8. 1(화) 16:00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구책임인 김보국 연구위원과 연구진 2인(이성백박사, 이성재박사)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과제로, 변무섭(전북대 교수), 박미호(생명의 숲 운영위원), 심정연(전라북도 환경정책과장),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연구의 범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구역설정, 부문별 내용의 고려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였다.

*** 전라북도 정보화종합계획(수탁) 중간자문회의**

전라북도 정보화종합계획 중간자문회의가 8월 3일 본원 연구진(이승형, 나상균, 이동기, 김태준 등), 한국생산성본부연구진, 자문위원 4명, 전북도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본원회의실에 열려 전라북도의 산업정보화 및 도시정보화부문의 비전, 기본방향, 전략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 전북 전통·지연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수탁) 연구 1차 연구진 회의**

8월 7일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전북 전통·지연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를 위한 1차 연구진 회의를 갖고 연구자문위원결정, 연구목차검토, 실행예산 논의 등 연구의 전반적인 골격을 잡는 회의를 진행했다.

*** 군산항 포트세일(협약)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

8월 7일 오후 3시 군산항 포트세일 실시를 위해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관계자와 협의 하고 이에 앞서 8월 2일 군산항과 흡사한 광양항 배후 물류단지 현장답사

***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수탁) 착수보고회 및 현장조사**

8월 9일 진안 데미샘골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착수보고회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창현 연구위원의 착수보고이후 산림환경연구소장, 도 관계자, 연구진 간에 향후 면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후 8월 11일(금) 진안 데미샘골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계획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진안군 관계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환경연구소장과 진안군 산림축산과장의 현지 설명과 계획 수립 상 유념해야 할 주요사안에 대한 청취와 연구진의 계획대상지의 자연 및 인문환경 여건조사 등이 병행·진행되었다.

*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제정(수탁) 연구진회의

8월 10일 연구원회의실에서 이희성 원광대학교수, 유진식 전북대학교수, 박형창 연구위원, 김명룡 연구원, 전라북도 고근택 새만금 지원과장, 이우철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연구진회의를 열고 두바이 같은 획기적 아이디어와 시대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새만금특별법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해 포괄적 법조항 마련을 권고했다.

주요행사

*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협의회별 세미나

일 자/분 과	주 제 발 표 및 토 론
문화관광영상 분과 8.7(월) 15:00 본원 회의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도시 마케팅 방안 - 주제발표 (1) 혁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문화·예술 활용방안 이정덕(전북대학교 교수) (2) 혁신도시 문화비즈니스기능 확충방안 최종렬(전주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이무용(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성기만(전북도청 전문위원) 이인권(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전충현(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대표)
미래성장산업 분과 8.10(목) 15:00 본원 회의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농기계부품 클러스터 육성방안 - 주제발표 (1)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전북 농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김용환(호원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강재훈(한국기계연구원)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 김용현(전북대학교 교수) 전갑용(LS전선협력업체협의회) 조성환(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일 자/분 과	주 제 발 표 및 토 론
생물산업분과 8.1(화) 10:30 본원 회의실	혁신도시를 통한 전북 농생명산업 성장동력 발굴 - 주제발표 (1) 전통발효식품 고부가가치 및 세계화 - 오석홍(우석대학교 교수) (2) 식량 Combinat 사업 - 신동화(전북대학교 교수) (3) 쌀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 나종민(대두식품) (4) 종자산업 거점 클러스터 구축 - 이강수(전북대학교 교수) (5)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 진효상(전주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송해안(전주대학교 교수) 윤병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현우(한국식품연구원) 황정환(농촌진흥청)
기획전략분과 8.4(금) 14:00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513호	전북혁신도시 개발성과의 극대화 방안 - 주제발표 (1) 전북혁신도시 개발성과의 극대화 방안 정철모(전주대학교 교수) (2) 혁신도시의 법적, 행정적 지위와 전북도의 역할 송재복(호원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김선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한태(호원대학교교수) 송영남(전북대학교 교수) 서희석(원광대학교 교수) 유기상(전라북도 혁신도시 추진단장)

* 전북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포럼사업 참여기관 1차 간담회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8월 10일 오전10시30분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포럼 참여기관 1차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라북도, 전북중소기업청, 전북교육청,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 전북경영자총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 도내 각대학 산학협력단 등 15개 기관의 참여로 향후 포럼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오는 8월 30일 '전북의 고용·인적자원개발의 현황진단(안)'이라는 주제로 제1회 포럼 개최를 합의하고을 참여기관의 협약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등 정

*한영주 원장

- 8월 8일 오후 4시 mbn(매일경제뉴스) 『경제플러스 현장속으로』 인터뷰 <전북발전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8월 16일 오후 7시 30분 방영)
- 8월 8일 전북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주최로 도청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전략산업 연계 IT산업 정책포럼” 에서 사회

*전정희 소장

- 8월 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제34차 여성정책포럼(주제: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성과와 과제)에 참석

*김진석 연구위원

- 지역혁신 우수사례 전라북도 예선대회 준비를 위한 ‘연구지원기관 관계관 회의(8/8, 화)’ 개최 및 ‘시군관계관 회의(8/7, 월)’ 참가
- 2006. 11. 7~11에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에 출품할 전라북도의 지역혁신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9.5(화)에 개최되는 ‘지역혁신 우수사례 전라북도 예선대회’ 준비를 위하여 ‘연구지원기관 관계관 회의’ 개최 및 ‘시군관계관 회의’ 참가. 이들 회의에서는 전라북도의 우수사례 발굴 및 응모방안에 관해하여 협의

*나상균 연구위원

- 8월 2일 첨단부품소재 전진기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업 지원 및 육성 분야 위원으로 선정되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사전기획회의

*안완기 연구위원

- 8월 9~10일 대형국책사업발굴 현상공모 추진 일정 건 등 도 정책기획관실과 협의
- 8월 11일 “2030 전라북도 중장기 인구증대 방안” 연구 자료 검토 및 구상

*이동기 연구위원

- 8월2일 지방행정혁신인력개발원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평가단 워크샵에 참석. 이 번 워크샵은 새롭게 도입된 VAPS 평가방법 매뉴얼 설명, 평가작성방법, 구체적인 평가 일정 등을 중심으로 교육 및 의견교환

*이승형 연구위원

- 8월 7일 전라북도청 1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지역농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보화에 대한 농업인 수용태도 분석 및 정책과제"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토론

*이창현 연구위원

- 8월 2일 14:00 제3회 전라북도 혁신도시 민관학 공동위원회 회의 참석

게시판

전라북도 지역혁신 예선대회

-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 장 소 : 전라북도청
- 접수기간 : 2006년 8월 10일 ~ 8월 18일
- 접수처 : 전라북도 혁신분권담당관실 균형발전팀

※우수사례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참고

자유발언대

- * 여성의 취업과 보육정책
 - 전정희 소장 (☎ 5P.)
- *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 안완기 연구위원 (☎ 6P.)
- * 강아지를 만나 행복한 변화
 - 이한호 정보지원팀장 (☎ 7P.)

언론보도

- * 혁신도시가 전하는 메시지
(전북도민일보, 8.07) - 한영주 원장
- *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수재(水災)
(전북도민일보, 8.02) - 전정희 소장

원고모집

- ✓ 자유발언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형식이나 장르 구분 없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지역발전에 대한 제안, 기타 등등)등을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정보지원실로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 ✓ 접수처 : jdi@jd.re.kr

여성의 취업과 보육정책

21세기를 지식정보시대라고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은 개인과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의 활용여부가 기업과 국가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히 여성의 취업은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49.1%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수치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형태를 띠고 있고, 단순직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가 밝힌 ‘고용전망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한국의 대졸여성 취업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인 82.1%에 비해서 가장 낮은 55% 수준이었다. 30년 사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42%가 증가한 데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율은 9.5%에 그쳤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이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직업적 커리어는 결혼에 의해 중단되거나 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혼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식 변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70~80년대 이후로 M자형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곡선을 벗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M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M자형 곡선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과 함께 25세 이후 경제활동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상위직에로의 진출이 불가능해지고, 그 결과 유능한 기혼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1년 11월에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골자로 기존의 모성보호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막상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여성노동력은 모성보호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여성인력활용이라는 과제와 출산률 증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기업은 여성노동자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서 경제활동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 됨과 동시에 유능한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출산은 미래사회의 노동력을 준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에 직면해 있다. 여성의 취업과 보육정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여성정책연구소장 | 전 정 희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근래 한국사회 공동체 전체에 관류하는 키워드는 혁신과 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변화되고 혁신되었는가에 대한 공통적인 정서적 느낌과 이성적 합의는 여전히 미완성 그 자체이다.



왜 그럴까. 왜 나름의 열정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해왔건만, 혁신과 변화는 그 언어가 의미하는 만큼의 만족도를 국민에게 주지 못하는 것일까?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수많은 이유와 해답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주된 핵심은 혁신의 추동세력이 제대로 혁신되지 않은 수준에서 혁신 자체의 추진이 정당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백번 양보한다 해도 혁신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서적 정향에 부응하는 개혁을 하지 못했거나, 하고서도 이를 홍보하지 못한 정책 집행상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세력이 먼저 혁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혁신의 추진과정에서 사회현상의 핵심 변수인 “이익”이라는 변수에 대해 물이해적 접근을 하였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이익을 양극화하였을 때 한 축인 사적 이익 추구 행태를 간과하거나 알면서 모른 척 해 온 정책기획 및 집행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수고했으니 그 정도의 사적이익 점유는 괜찮다”는 식의 접근은 결국 국민적 합의도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열정을 도출해 낼 수 없었다.

즉,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의 구분 없이 사적이익 창출에는 열정을 다하되, 공적이익을 창조적으로 이뤄내는 일엔 매우 소극적인 행태는 결국 변화와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선공후사(先公後私) 혹은 선우후락(先憂後樂)하는

행태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변화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의 정도인 관성(慣性)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과거지향적 의식과 행동은 분명 변화와 혁신의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공직사회나 공적 조직이 안고 있는 관성은 전체 변화의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당연히 일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조직이나 개인일수록 이미 기득권 세력이거나 끼리끼리의 연대가 매우 강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는 자발적 희생에 의한 솔선수범적인 역할을 취해야 한다. 혁신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을 선행해야 한다.

많은 변수 가운데 끝으로 들 수 있는 점은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집단과 개인이 “지식의 부족, 정보의 불완전성, 오해, 편견 속에서 무지 그 자체인 점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는 철저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앞에서 언급한 관성이나 사적이익 추구 행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편견 등으로 인한 무지의 폐해는 조직과 개인이 보유한 역동성조차도 후퇴 내지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철저히 일소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새로운 정련과정, 예를 들면 각종 교육이나 연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혁신 마인드 구축은 물론이요, 이를 실현해야 하는 의지와 실천 주체로서의 역동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이뤄질 때 한국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전북은 바로 태풍의 눈으로서 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다.

기획·조정팀장 | 안 완 기

강아지를 만나 겪는 행복한 변화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메시지를 접하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용기를 냈다.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아이들도 없고 가족과 떨어져 독신 아닌 독신 생활을 하는 나로서는 다소나마 적적함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하는 주변의 시선을 따돌리고 선뜻 결행했다. 생후 1개월 된 독일산 오소리 개(오소리사냥)라는 뜻을 가진 남자 닥스훈트. 잘 키울 자신 있느냐는 개주인의 다짐에 대답은 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했다. 서툰 솜씨로 강아지를 안고 영롱한 눈을 마주친 순간 미안한 생각부터 들었다. 분양받기 하루전날이 마침 말복 날 이었던 것. 전날 팔복동에 있는 광주리가든에서 연구원 식구들끼리 치른 복 다름 행사가 자꾸 마음에 걸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누군가 개 고기를 먹는 한국인의 자세에 대해 비굴함을 지적하면서 당당하라고 주문하였지만 강아지를 보는 순간 염치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분양조건에 강아지에 된장 바를 사람 제외라는 단서를 단 터라 더욱 미안했다. 먼 길을 달려 온데다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주위를 잔뜩 경계하면서 틈만 나면 구석에 머리를 처박기 일쑤였다.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강아지를 건네받고 부랴부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것도 처음으로 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해 보는 일이다. 검색을 하는 순간 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종류부터 시작해서 특징에 이르기 까지 개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나에게 새로운 개세상이 열린 것이다. 한마디로 개판이었다. 사료는 무엇을 먹여야 할 것이며 예방접종, 운동, 털 손질, 발톱손질, 목욕, 훈련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났지만 나에게에는 모든 것이 생소했고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겁부터 났다.

부족한 부분은 실전경험이 있는 주변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 강아지를 분양 받은 지 3일이 지났다. 그 사이 내 생활에도 약간의 변

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주일이면 주말을 빼고 거의 매일 술자리를 하다시피 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늦은 밤일 수밖에 없었다. 나의 밤늦은 귀가는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강아지를 데려온 이후로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녁 술자리가 길어질라치면 혼자서 캄캄한 방안에서 외롭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강아지의 눈빛이 떠오른다. 서둘러 자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강아지가 좋아할만한 남은 술안주거리는 주섬주섬 챙겨 간다. 오직 나만을 기다리고 있을 강아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아지는 나에게 기다림의 존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외로움에 지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나에게로 안긴다. 강아지에 대한 연민과 함께 생명(살아있음)을 만나는 즐거움의 신비를 만끽하는 순간이다. 캄캄한 죽은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 적막함과 마음겨루기 했던 과거의 생태에 비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내가 강아지를 보고 싶은 것보다 강아지가 나를 기다린 것이 더 큰 것 같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든다. 적당한 취기에 감성이 물오른 날은 감정까지도 나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되어야하는 강아지가 코끝이 찡할 정도로 가여운 생각과 함께 나 자신이 잔인한 생각이 든다.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하고 예방접종도 안했다. 오늘은 들어가서 주치의도 선정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애견샵에 가서 필요한 도구도 준비해야겠다. 분양 첫날 달라진 환경에 바짝 긴장하면서 구석만을 찾았던 놈이 3일째를 지나면서 제법 재롱도 부리고 나와 친숙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가끔씩 칭얼대기도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저를 돌볼 유일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차리는 것 같다. 이제 강아지는 나의 작은 즐거움이다. 약속한다. 최소한 개 같은 놈 소리는 듣고 살겠노라고.

정보지원팀장 | 이한호